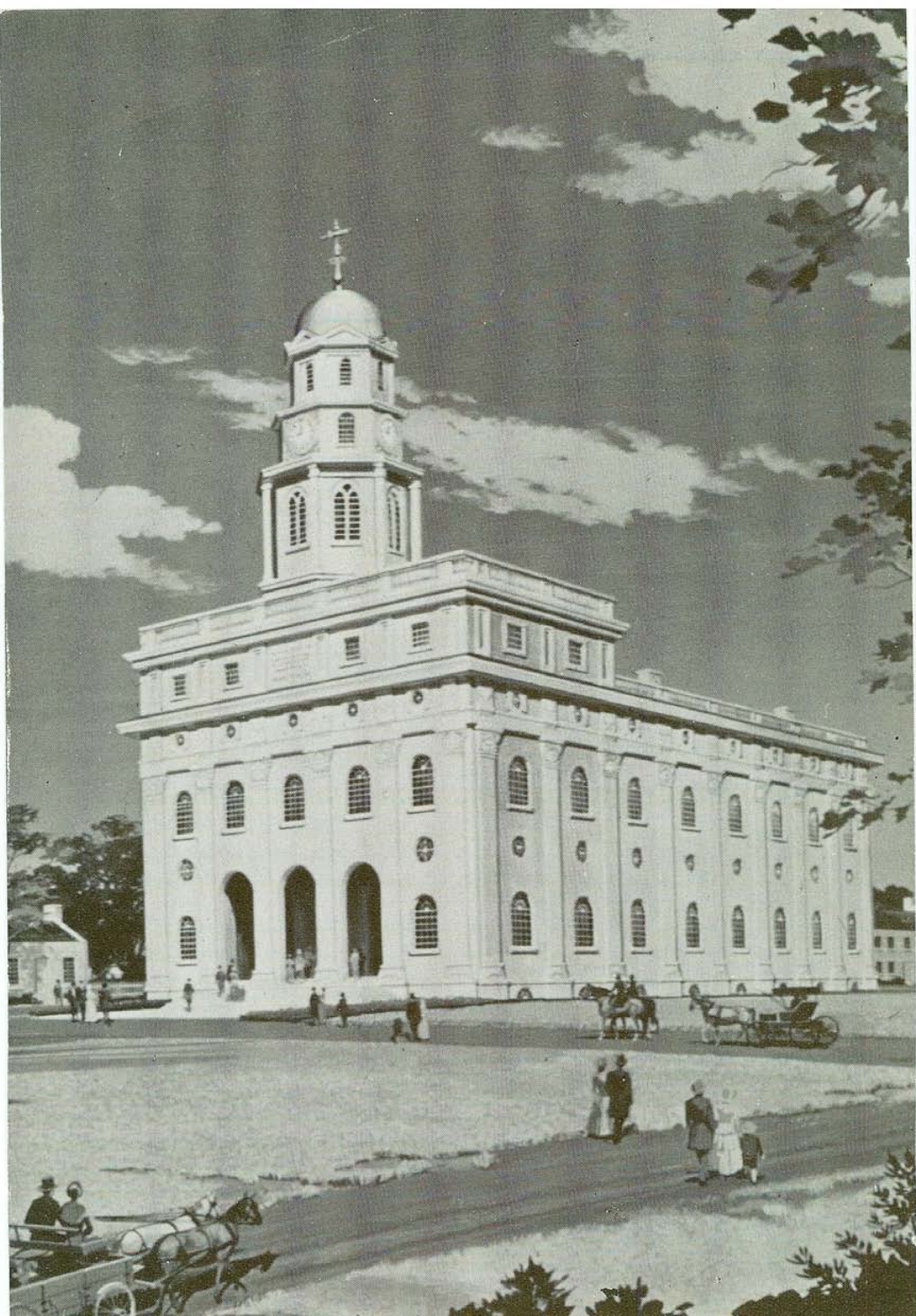




성도의 벗 1 1979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빛 1
1979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분

엔 엘톤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브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롱기

엘름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매리온 디 행스

로버트 디 헤일즈

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크로트

회복된 교회의 행정.....	엔 엘톤 태너 부대관장.....	2
회복의 때.....	글렌 엠 레오나드.....	14
교리와 성약 독서 과제.....		22
교회사와 세계사 비교 연대표.....		23
사진으로 돌아보는 중요한 교회의 유적.....		24
약속의 성취.....	존 니콜슨.....	29
인디안을 도운 토미와 엘리자.....	리차드 디 코미리.....	30
개척자의 여행 게임.....		32
친구가 친구에게.....	엠 러셀 벨라드 이세 장로.....	34
우리 시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45
주님의 서문.....	로이 더블류 독시.....	46
교리와 성약의 역사적 배경.....	윌리엄 이 베렛.....	50
지역 지도자 메시지.....	한 인상 장로.....	58
지역 소식.....		60

그림 설명

겉표지 : 공중에서 본 오늘날의 구모라 언덕

표 2 : 교회의 두번째 신전인 내부 신전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62호, 제15권 제1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9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델

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과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권 수

1979년
제15권 제1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회복된 교회의 행정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1978년 1월 8일, 브리감 영 대학교 매리웃 센터에서 교내 스테이크의 학생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발췌함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곧 계시에 기초를 두고 세워졌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있는 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상당히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가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알아 봅시다. 이 지구는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살면서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준비시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

나신 결과로 세워졌으며, 그 이후로 요셉 스미스는 끊임없이 계시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물론경이 있습니다. 계시에 의하여 번역된 이 책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터이라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벳 신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하여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설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은 이러하니... 하나님의 뜻과 계명으로 창립되었느니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되고 본교회의 첫 장로가 된 요셉 스미스 이세에게 주신 것이요” (교리와 성약 20 : 1-2)

“보라, 너희 가운데 작성될 기록이 있으리니, 그 기록 중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견자와 번역자와 예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회의 장로로 불리우리니” (교리와 성약 21 : 1)

우리는 간혹 교회가 사람에게 의하여 다스려진다는 말을 듣습니다마는 실상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표자를 통하

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신앙개조의 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 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5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셉 스미스는 주님으로부터 교회의 대관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에 의하여 성별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된 모든 신권의 직분과 그 임무들을 읽는 것은 나에게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 일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벨기세덱 신권을 가진 대제사들 중에서 세 사람의 관리 대제사가 선출되어 그 직분에 임명 성임되며 교회 회원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 교회의 대관장단인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거듭 이르노니, 대신권의 직분을 관리하는 대관장의 의무는 온 교회를 통할하며 모세와 같아야 하느니라...”

“참으로 저는 교회의 머리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지닌 선견자요, 계시자요, 번역자요, 예언자니라.” (교리와 성약 107 : 22, 91-92)

“십이 순회 평의원은 부름을 받아 십이사도가 되나니,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될 자들이니라. ...

“저들은 정원회를 구성하며 권위와 권능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세 관리 대제사와 동등하다.” (교리와 성약 107 : 23-24)

다음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십이사도의 임무와

권능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권능이란 대관장단 다음가는 것이다.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십이사도는 대관장단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순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보좌인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데릭 지 윌리엄즈 그리고 내가 없는 곳에는 십이사도를 관장할 대관장단은 없습니다.” (105-6페이지)

요셉 스미스가 사망하자 십이사도는 브리감 영을 회장으로 하여 교회를 관리하는 총관리 역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교회의 제반 사무를 관리하였습니다. 그 후에 브리감 영이 교회 대관장으로 택함을 받았으며, 그는 그의 보좌를 택하여 성임하고 성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 대관장이 사망하고 존 테일러 대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또 다시 3년 2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이 사망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윌포드 우드럴 대관장이 택함받고 성별받아 교회 대관장으로 성임되었습니다. 그후로는 대관장이 사망한 후에는 불과 며칠 안에 다음 대관장이 성임되었습니다.

1973년 12월 26일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 대관장의 비서인 아서 헤이콧 형제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딸의 집에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헤이콧 형제는 리 대관장님이 위독하니 될 수 있는대로 급히 돌아와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반 시간 후에 또 다시 그가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리 대관장님은 본향으로 부름받아 가셨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교회 사무를 관리하

고 있던 롬니 부대관장님이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과 함께 병원에 계셨습니다. 리 대관장님이 돌아가시자 즉시 롬니 부대관장은 킴블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이제 책임을 맡으십시오” 리 대관장님이 돌아가신 후 십이사도가 교회 관리를 맡은 때까지는 채 1분도

넘지 않았습니다.

리 대관장님의 장례가 끝난 후, 킴블 회장님은 12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솔트레이크 신진 평의회실에서 사도의 모임을 소집하셨습니다. 롬니 부대관장과 나는 각각 평의회 선임 순위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참석한 사도는 모두 14 명이었습니다. 개회 찬송을 부르고

“말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으로
창립되었느니라”



롬니 부대관장의 개회 기도가 있는 후, 킴블 회장님은 겸손하게 그의 느낌을 말하셨습니다. 그는 금요일에 신전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의 새로운 책임을 감당하고 보좌를 선택하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전복을 입고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킴블 회장님은 나에게 이 기도회의 진행을 부탁하셨고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에게 기도를 드리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친 후, 킴블 회장님은 이 모임의 목적을 설명하고, 사도로서 봉사한 기간에 따라 에즈라 태프프트 벤슨 장로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정원회 회원 각 사람에게 대관장단을 조직해야 할지 아니면 십이사도 평의회에

서 대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조직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으며 킴블 대관장님을 칭송했고 십이사도와 함께 이룩한 그분의 업적도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에즈라 태프프트 벤슨 장로가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를 교회 대관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 추천은 마크 이 피터슨 장로의 재청을 받아 만장일치로 동의되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그의 보좌를 지명하였습니다. 제 1 보좌로 엔 엘돈 태너, 제 2 보좌로 메리온 지 롬니 장로를 지명하여 두 사람은 모두 모든 시간과 힘을 다하여 기꺼이 봉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추천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십이사도 선임 순위 제 2위인 마크 이 피터슨

장로가 애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추천하였으며 이것도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석한 사도들이 모두 스펜서 더블류 킴블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애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12대 대관장으로 성임하고 성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킴블 대관장이 엔 엘돈 태너 장로를 교회 대관장단 제1보좌로, 메리온 지 림니 장로를 제2보좌로 성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킴블 내관장은 애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 열한 명이었으므로 새로운 사람을 불러 결원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총관리 역원이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에 대하여 궁금해 하리라 생각합니다. 총관리 역원은 대관장이 십이사도가 추천하는 사람과 대관장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을 고려하여 영감과 계시로써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과 계시로써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총관리 역원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자니, 부름받고 성별되기 전에 십이사도 평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예의 한 가지로서 히버 제이 그랜드 대관장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면서 대관장으로부터 추천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결원되어 있는 십이사도 자리에 부름을 주도록 어떤 좋은 친구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택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랜트 대관장은 그가 대관장이 된다면, 그래서 십이사도 결원을 채워

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꼭 그 사람을 부르리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가 정말 대관장이 되어 결원을 채워야 할 경우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랜트 대관장이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벨빈 제이 벨라드라는 이름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으며 바로 그 사람이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벨라드 장로는 대관장의 추천과 사도들의 동의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캐나다 앨버타의 켈가리스 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면서 1960년 10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연차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호텔로 전화가 왔는데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다음날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나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나는 물론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약속한 시간에 대관장님을 그의 사무실서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자리에 앉자 그분은 내 눈을 바라보시며 내 무릎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너 부장 주님께서는 형제님이 십이사도 보조로서 총관리 역원의 부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큰 영광을 입었고 나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지나 기꺼이 부름을 받아 주님을 위하여 온 시간과 힘을 다하여 봉사하겠다는 뜻을 그분에게 확신시켜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의 이름은 프랭크린 더 리차즈 장로와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와 함께 십이사도 보조로 지지받기 위하여 불리어졌고, 다른 총관리 역원도 불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대회에서 지지 받았습니다. 전세계의 교회 역원이 각 단위별로 이같은 방법에 따라 지지받게 됩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77년도 대회에서 한 사람이 반대 지지를 하였습니다. 대회 진행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은 우리가 제시한



태너 부대관장



김블 대관장

사람에 대하여 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핑클리 사도를 만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에게 다른 누구를 만나도록 부탁하는 목적은 제시된 역원을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시된 역원이 지지되지 않아야 할 이유 또는 지지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유를 들은 총관리 역원은 대관장단에게 그 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내가 스테이크를 조직하려 뉴질랜드

로 가도록 부름받았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질랜드에는 그 당시에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만나보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뉴질랜드 스테이크 내의 모든 감독과 고등 평의원의 명단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명단을 훑어볼 때 캠펠이라는 이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목록을 들여다 볼 때마다 그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덴버그 감독이 나와 함께 동행하였는데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후

에 명단에 나와 있는 역원을 모두 접견 하였습니다.

접견을 모두 마친 후 나는 반덴버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인도를 간구합시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내가 물었습니다. “형제님이 스테이크 부장을 택할 책임이 있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빌 캠벨 형제입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반덴버그 감독에게 그의 이름을 언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인도해 주신 증거의 하나입니다.

이제 십이사도의 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십이사도의 평의회는 대관장단의 지시를 받아 교회의 중



롬니 부대관장



벤슨 회장

교적인 일 (중무)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십이사도 평의회는 칠십인 제 일 정원회 회원이 수행하는 교회의 중무에 대한 운영 전반을 감리하는 책임을 집니다. 또한 전세계의 스테이크 대회 일정을 계획하고, 전 세계에서 7월을 제외한 일년 11개월 동안 매주 열리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도록 총관리 역원에게 방문을 지명할 책임을 집니다.

총관리 역원은 모두 토요일 저녁 모임과 일요일 일반 총회를 위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세계의 모든

회원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자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스테이크 부장단과 스테이크 역원을 만나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토론하여야 합니다. 총관리 역원은 적어도 이주일에 이를 내지 4일간은 대회 참석, 선교부 방문 등의 임무로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십이사도 평의회는 또한 새로운 선교 부장을 위한 세미나와 매년 갖는 지역대표를 위한 세미나를 계획할 책임을 집

니다. 그들은 전 세계 교회의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감리하는 책임을 집니다. (대관장단과 함께 목요일에 갖는 모임과 다른 모임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는 다음에 언급하겠습니다.) 십이사도는 또한 정규적으로 모임을 가져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였던 다른 총관리 역원의 보고를 듣고 행정면에서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합니다.

칠십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보조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십이사도 보조라는 직분의 사람들을 임명해야 했습니다. 후에 십이사도 지역대표가 부름 받아 스테이크의 역원들을 보다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를 조직할 만큼 교회가 발전하게 된 것이 1970년대였다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십이사도 보조였던 사람들은 칠십인으로 성임되었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지역 대표가 임명되어 멀리 떨어진 선교부와 스테이크가 교회 행정을 돕도록 선택된 사람들과 보다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지역 대표는 스테이크, 워드 및 선교부 행정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자들입니다.

칠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칠십인은 십이 사도회...의 지시 아래 교회를 설립하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를 정리함에 주의 이름으로 행할 자니” (교성 107:34)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를 설립하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를 정리함,” 칠십인의 책임에 대하여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축복사는 축복을 받으러 오는 교회 회원에게 축복을 줍니다. 때로는 지명에 의하여 온 세계를 두루 여행하면서 축복사가 없는 선교부와 지역에서 축복을 줍니다.

교회 관리 감독단은 교회 대관장을 제외한 다른 총관리 역원과 같은 방법으로 부름을 받고 성임되며 성별됩니다. 관리 감독단 각 사람은 전 세계의 어떠한 스테이크 또한 선교부에서라도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단의 임무는 대관장단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세상적인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부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하여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행정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무는 대관장단의 지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무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대관장단이 직접 처리하는 사무, 둘째, 대관장단의 지시를 받아 십이사도가 처리하는 종교적인 사무(종무), 셋째, 대관장단의 지시를 받아 관리 감독단이 처리하는 물질적인 사무가 그것입니다.

대관장단이 직접 처리하는 사무 중 몇 가지를 든다면 지역 대회, 교회 대회, 예산, 교육, 역사 및 인사과, 신전, 감사, 협의 평의회, 복지 사업 등입니다.

현재 십이사도 밑에는 5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각 분과는 십이사도의 지시를 받아 두세 명의 칠십인이 그들의 간부 직원들과 함께 운영합니다. 5개의 분과는 신권과, 선교사과, 계보과, 지도자 훈련과 및 협의과입니다. 그 중에서 두세 개의 분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권과에서는 벨기세

백 신권, 아론 신권, 보조 조직의 훈련 자료, 교재 및 지침서를 준비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교회 잡지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협의과에서는 학습 과정과 잡지에 관한 모든 자료, 곧 교리, 약호, 등등을 점검하고, 협의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협의 위원회란 위의 4개 분과의 집행 책임자와 협의 집행 책임자 그리고 관리 감독과 교회 교육 책임자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교수 자료와 훈련 자료는 각 개인이 신전 사업, 선교 사업 그리고 교회 각 조직에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준비시키고 일생을 준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수정됩니다. 개개인이 영생을 얻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선교사과에서는 예비 선교사를 준비시키기 위한 전도 자료를 선교사에게 제공해 주고, 선교사에게 임무를 지명하며, 방문자 센터 운영과 그 밖의 선교사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일을 관리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가 어떻게 부름을 받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을 것입니다. 감독은 예비 선교사의 부모에게 말하기 전에 우선 예비 선교사와 접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예비 선교사가 부름 대상에 올라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전에 당사자의 태도와 합당성을 먼저 타진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당하고 기꺼이 선교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감독은 부모와 상의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일이 순조로우면, 감독은 예비 선교사를 스테이크 부장에게 추천하여 다시 합당성과 태도에 대한 접견을 받게 합니다. 스테이크 부장과의 접견에서 역시 합당성과 태도가 좋다고 확인되면 대관장단

에게 추천됩니다.

예비 선교사가 어느 선교부로 부름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을 고려합니다.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추천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희망지, 그 당시에 선교사가 필요한 선교부 등등입니다. 영감을 통하여 그가 가장 훌륭하게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선교부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비 선교사는 교회 대관장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고 부름을 받으면 선교사는 대관장에게 답장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이 그의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지지하고 계시는가를 보여 주는 선교사 부름에 관한 흥미있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러한 예를 들자고 한다면 수없이 많습니 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의 선교사에게 그들을 선교사로 부르는 지명 편지를 보낸 후의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와 집행 서기는 미국 동부의 선교부로 지명된 청년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청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청년의 부모가 모두 몹시 실망했으며 그들은 아들도 역시 독일 선교부로 부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기는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학교에 가고 없으며 자신이 먼저 편지를 뜯어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자기가 어디로 부름받는지 아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대관장으로부터 받은 단 하나의 편지를 당사자가 없는 동안에 먼저 어머니가 뜯어 보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어머니는 사과의 전화

를 하면서 아들이 그 부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외국 선교 지역으로 부름받지 않게 해달라고 남몰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은 어느 한 곳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에서 행하여집니다. 교회가 전 세계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고 발전해 감에 따라 교회의 행정은 전세계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지역에서의 교회 조직과 회원 훈련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 행정면에서 경험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조금밖에 없는 회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지부, 지방부, 와드, 스테이크들이 있습니다. 일 예를 들면, 내가 2년 전에 베네즈웰라, 카라카스를 방문하였는데, 선교부장은 회원들이 모임에 참석하도록 불렀습니다. 참석자의 수는 약 3,4백 명이었는데 그중에는 교회 회원이 된지 5년 이상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카라카스에 스테이크를 조직하였습니다. 교회 회원이 된지 가장 오래된 사람이 7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조직된 교회에 많은 도움과 훈련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분명히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성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부터 1976년까지, 그러니까 내가 총관리 역원으로 있던 동안 회원의 수는 배 이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교회 회원은 397 퍼센트나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와드의 수는 278개에서 892개로 증가되었고 스테이크의 수는 48개에서 143개로 증가되었습니다. 1977년 9월 현재 통계에 따르면, 862개 스테이크, 5648개 와드, 1495개 스테이크 산하 독

립 지부, 158개 선교부 그리고 선교사의 수는 24,000명이 넘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를 지구(북합 지역)와 지역으로 나누어 지구(북합 지역)고문과 지역 관리자가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미국 이외 지역에는 5개 지구의 12개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지구(북합 지역)고문과 지역관리자는 모두 칠십일 제일정원회 회원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구(북합 지역)와 지구(북합 지역)고문은 본부에 남아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 관리자는 각기 해당 지역에서 살도록 임명됩니다.

지역관리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험이 많고 합당하며 지역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선택된 지역 대표를 관리합니다. 각 지역 대표는 여러개의 스테이크와 선교부를 관할합니다. 그러므로 스테이크와 선교부의 지도자들은 솔트레이크시티 본부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역 대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지역 관리자와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리자는 긴급 조치를 필요로 하는 많은 문제를 다루고 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 단위에서 많은 훈련과 도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관리자는 지구(북합 지역)고문에게 보고하고, 지구(북합 지역)고문은 다시 십이사도 평의회로 보고합니다.

이제 관리 감독단의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리 감독단은 모두 대관장단이 그들에게 지명한 일체의 세상적인 일을 집행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분과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을 짓고 유

지하며 부지를 구입하는 봉사과로서 활동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재정, 회원 기록 카드, 금식 현금, 십일조, 중앙 구매, 번역 및 배부 등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또한 복지 사업과를 관리하는 정책을 지고 있는데, 이 복지 사업과의 중요한 프로그램과 정책은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관리 감독단 그리고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복지 사업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복지 사업 프로그램에는 전세계의 메저랫 산업, 스테이크, 와드 및 선교부 복지 프로그램, 감독의 참고 등등이 포함됩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전세계에서 이같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감독단 지역 관리자가 임명되는데, 그는 지명받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내에서의 모든 세상적인 사무 행정을 관리하며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성도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행정 전반에 대한 합당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관리 역원 지역 관리자와 관리 감독단 지역관리자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제 대관장단은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오전 8시에 모임을 가지며, 서기는 이들 모임의 모든 진행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 모임에서 그들은 대관장단 앞으로 발신된 서한을 검토하는데, 여기에는 스테이크 부장단과 고등 평의회가 결정한 파문 조치에 대한 상고 문제가 포함되며, 의복 및 머리 모양에 대한 표준, 최면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경전 해석, 인용, 지역 역원에 대한 불평, 영혼 재래설, 과학 연구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의 일부를 바치는 문

제, 화장, 이식, 법률적인 문제 등등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새로운 신전장 선택, 새로운 신전을 언제 어느 곳에 지을지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십이사도 평의회나 관리 감독단과 함께 갖는 모임에서 토론되어야 할 여러 문제 등, 주의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세계에서 열리는 지역 대회와 그 밖의 여러 대회를 계획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관장단은 지출 위원회와 모임을 갖습니다. 지출 위원회는 대관장단, 십이사도 중 4명 및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곳에서 각과의 장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제시하고, 할당액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과에서는 스테이크나 와드 건물 선교본부, 방문자 센터 등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구입에 대한 경비를 신청하며, 건물 유지비에 대하여 토론합니다. 또한 관리 감독단은 복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합니다.

수요일에 갖는 대관장단 모임은 역사과, 인사과 및 공보과 등 대관장단 직속 각과의 장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한 방문자와의 약속도 가능하면 수요일 오전에 계획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관장단이 이러한 방문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서신이나 구두 보고를 통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매달 어느 한 수요일에 대관장단은 교회 교육 위원회와 이사회와 함께 모임을 갖고 종합 대학교와 단과 대학, 신학연구원, 그 밖의 교회 학교에 대한 제반 문제를 다룹니다. 또한 다른 한 수요일에는 대관장단, 십이사도 평의회,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된 조정 평의회와 모임

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책임 분야가 올바르게 구분되고 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문제를 토론했고 결정합니다. 이 모임에 이어서 그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 사업 위원회와 모임을 갖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그들은 신전 다락방에서 이미 오전 8시부터 모임을 갖고 있던 십이사도 '평의회와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신전이 완공된 이래로, 바로 이 방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특별한 영적인 느낌을 경험하며, 때때로 먼저 가진 위대한 지도자들이 임재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열두 명의 교회 대관장과 축복사 하이람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또한 구세주께서 사도들을 부르셨던 갈릴리 바다에 제신 그의 초상화와 구세주의 돌아가심과 승천을 말해 주는 그림도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과거에 이 방에 앉았던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생각하게 되며, 주님의 지시를 받아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관장단은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방에 들어가면 십이사도와 악수를 나누고 나서 신전복으로 갈아 입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린 다음 제단 앞에서 차례대로 돌아가며 기도드린 다음에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지난 주 모임의 모임 기록을 토론한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상의합니다. 스테이크 부장이 제의한 감독단 변경에 대한 승인 이것은 미리 십이사도 모임에서 토론됩니다(1977년도에 매주 25명 내지 30명의 새로운 감독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전세계를 통하여 스테이크, 와드, 선교부 및 신전 조직상의 구역 및

역원 변경, 보조 조직의 역원 및 행정 문제, 각 분과의 장이 제시한 문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스테이크 대회와 다른 활동에 대한 보고 등등입니다. 모든 행정 및 정책상의 변경이 있을 때 토의하고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이 모임이며 여기에서 승인되면 곧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 됩니다.

이러한 토론에 관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십이사도 각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관점을 자유로이 제시하였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이 토론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시자 나는 옆에 앉아 있는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대관장님이 언제나 올바른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가 모두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느끼게 되니 참 훌륭한 일이 아닙니까?"

옆에 있던 그 형제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었든지 관계 없이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사람은 그 결정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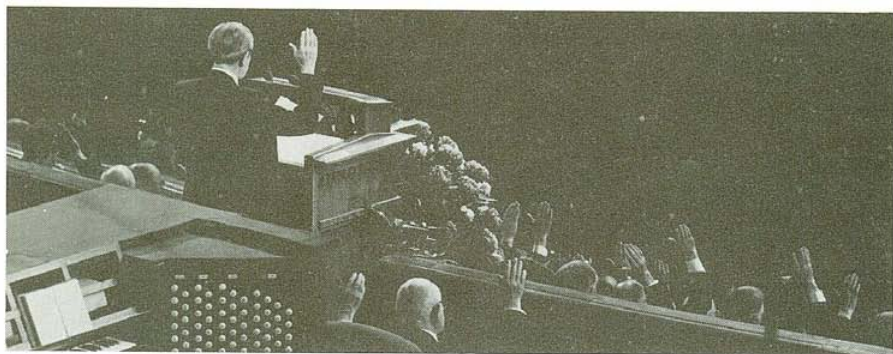
매달 첫번째 목요일에 대관장단은 총관리 역원 전원...십이사도, 교회 축복사, 칠십인 및 관리 감독단과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에서 모든 총관리역원은 프로그램이나 정책상의 변경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들의 임무와 책임에 대한 지시를 받습니다. 대관장님은 총관리 역원들이 간증하도록 하게 하며, 간증이 끝난 다음 우리는 모두 신전복으로 갈아입고 성찬을 들고, 참석자 전원이 돌아가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

도가 끝나면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평상복을 갈아입고 목요일 모임에서 다루는 일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모임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모두 서기가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매주 목요일 모임이 끝난 후,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지정된 방에서 오찬을 듭니다. 이 방에는 최후의 만찬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오찬 시간은 쉬는 시간이며, 가벼운 담소를 나눕니다. 시간이 있으면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으나 생략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관리감독단은 대관장단에게 보고하고 행정상의 문제를 토론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에는 교회의 유익과 공공을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 사단 법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수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는 다른 일반 사업체와 똑같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태너 부대관장

우리는 항상 교회가 증책에 임명된 자 곧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 축복사, 칠십인 제일 정원회 및 관리 감독단 등에 의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되고, 지역의 직원들도 역시 축복받고 지시 받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주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우리가 모두 이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이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준비하기를 겸손히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회복의 때

글렌 엠 레오나드

말 일 성도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복음과 참된 교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요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현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일련의 기사에 대한 소개로서, 회복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눈을 돌려 보는 것이 가치 있을 것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말한 것과 같이 “여러 민족의 위에 더 나은 날이 동트기 시작했다” (교

1830년 교회를 처음 조직한 여섯 사람.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도 참석하고 있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요셉 스미스 이세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교리와

회사 요해, 제11판, 18페이지)

미국에 종교의 자유를 가져다 준 오랜 역사적인 진전은 수백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6세기에 있었던 유명한 마틴 루터의 천주교에 대한 도전이 종교 개혁의 시초가 되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가 물려받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정신적인 유산을 볼 때 오히려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의 영향이 더 컸다. 영국 청교도들이 기존 교

성약 제 2편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 모임에서 지지된 관리 역원을 인정하신다는 뜻을 알리셨다.



회를 부인하여 종교의 자유를 찾아 북미로 피신하도록 영향을 준 것은 칼빈의 가르침이었다. 그들은 미국의 종교 양식을 세웠다. 예를 들면 청교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 여기고, 새로운 세계에서 모범적인 기독교 사회 곧 시온성을 건설하도록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영국 이주민단에서 두드러진 종교적 사상인 청교도 정신이 유일한 종교 사상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기독교 교파가 세워져 미국을 다양한 종교의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1776년의 미국 독립은 교회와 정치를 정식으로 분리하는 정치적 풍토가 조성됨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를 얻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나라에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는 정교 분리 운동이 퍼지자 1790년대부터는 신앙 부흥 운동이 전국을 휩쓸었으며, 이러한 물결은 1812년 미영 전쟁이 있는 후까지 계속되었다.

어떤 부흥 운동은 서부 뉴욕에서 1820년대 후반에 정점을 이루었는데, 그곳에서는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위하여 서쪽으로 옮겨 온 과거의 뉴잉글랜드 지방 주민들이 종교를 영원한 생활 수단으로 발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의 복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구세주의 재림이 곧 임할 것같이 행동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무리 중 가장 활발하였던 무리는 토마스 캠벨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도의 제자”(또한 캠벨 주의자)라는 교파였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던 시드니 리그돈은 캠벨교의 유명한 목사의 한 사람이었다. 캠벨교에 가입하기 전에 시드니 리그돈은 침례 교인이었다. 그

리스도의 제자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중에는 팔리 피프렛을 위시하여 후에 말일성도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관심을 가장 끈 주제의 하나는 신앙, 회개, 침례 및 성신의 은사 등의 기본적인 신앙 원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개종자들 중에는 진실로 캠벨 교인들이 구원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합당한 권능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찾고자 한 또 다른 사람들로서 요셉 스미스의 가족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요셉 스미스 일세와 그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모두 뉴잉글랜드 주민들이었다. 뉴햄프셔주와 버몬트주의 농장에서 가족은 돌밭과 때 이른 서리와, 농사 흉작과 전염병으로 실의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816년 스미스 가족은 여덟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서부 이주민을 따라 나섰다. 서부 뉴욕의 숲이 있는 언덕에 그들은 팔마이랄라는 조그마한 마을 근처에서 땅을 갈았다. 1만 4천평 정도의 농장에 그들은 두 개의 다락방과 두 개의 방이 있는 집을 지었으며, 나중에 연이어 집을 확장하여 지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은 잡일도 해야 했다. 요셉 일세는 단풍나무 수액에서 설탕을 얻어 냈으며, 아들들과 함께 우물을 파고 물동이와 물통을 만들어 팔았다. 루시는 기름떡인 식탁보를 칠하고 팔았으며, 빵과 과자를 구워 팔았다. 이웃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이 매우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 사회에서 교육의 기회란 거의 제한되어 있었다. 스미스가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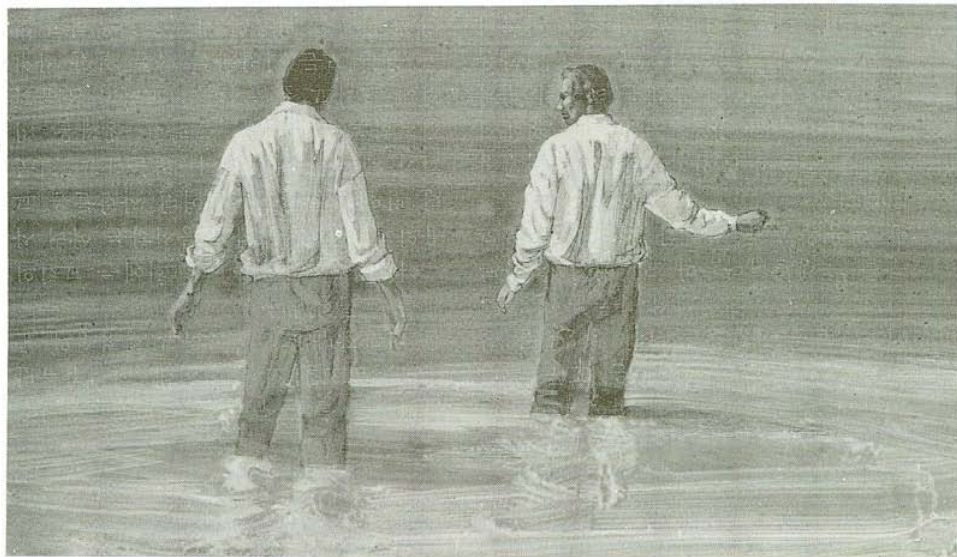
너들도 일년에 3개월 정도만 학교에 갈 뿐이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만을 겨우 배운 정도였다. 그러나 유독 요셉 스미스 이세만은 책에 남다른 취미를 갖고 혼자서 공부하였다. 그는 그 지방의 신문을 읽었으며 청소년들의 토론 클럽에 참여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후에 요셉을 “상당히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간혹 부모에 대한 그의 사랑과 효도심을 말했다고 회상하였다. 어린 요셉은 그의 명량한 성품 때문에 많은 친구를 갖게 되었다.

스미스 가족은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 경전을 공부하기만 하였다. 1819년경부터 그들은 팔마이라—맨체스터 지역에서 교회를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그해 감리교인들은 스미스 농가로부터 약 16킬로미터 떨어진 비엔나 지역에서 연례 대회를 가졌다. 많은 목사들이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였

다. 대회가 끝난 후, 당시의 관습대로 교의로 흩어져서 부흥회를 열었다. 침례교와 장로교의 목사들도 역시 개종자를 찾으려고 온 지역을 휩쓸었다. 루시맥 스미스, 딸 소프르니아, 아들 하이람과 사무엘은 장로교에 가입하여 1828년경까지 계속 장로교에 다녔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 일세, 윌리엄 그리고 요셉 이세는 어떠한 중파에도 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순회 목사들의 전도는 요셉 이세에게 빛을 주기는 커녕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부흥 운동의 대단한 열의는 종교를 내세우는 자들간의 혼란을 말해 주는 증거라고 믿었다. “나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1835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옳아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 와이 유 연구 9:284, 1969년 봄)

요셉은 개종자를 구하느라 혈안이 되



어 있는 종파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현존하는 기독교를 세밀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조사해 보았다. 조사해 본 결과 지상에는 신약 시대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부터 배도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비 와이 유 연구, 9: 279) 어느 날 경전을 공부하다가 그는 야고보서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권고를 읽었다.(약 1: 5) 요셉은 그가 혼란 가운데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는 한 옛날의 사도가 권하신 대로 해야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1820년 봄, 당시 15살도 채 못된 소년인 요셉 스미스는 집 근처의 숲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후에 그가 말한 그 중요한 아침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구원과 인류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어떤 교회에 속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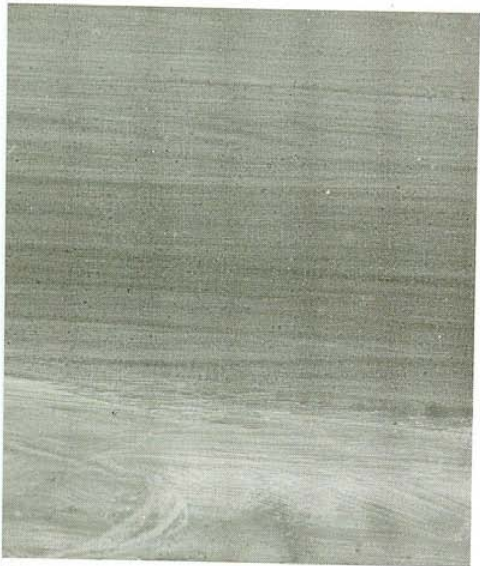
기도를 시작하자 요셉은 필사적인 투쟁을 경험하였다. 기도하려 했을 때 그는 말도 할 수 없이 강한 악의 힘에 사로잡혔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상념이 떠올랐고, 누군가가 그에게로, 다가오는 듯한 소리도 들었다. 곧 그는 엄습해 오는 칠흑 같은 암흑에 싸였다.

이러한 중에도 어린 요셉은 속으로 끊임없이 구해 줄 것을 기도하였다. 이윽고 악마의 존재가 사라지고 밝은 빛 기둥이 내려와 숲에 있는 그를 둘러쌌다. 실로 밝은 빛 가운데 영광스러운 두 인격체가 서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요셉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한 사람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아들의 거룩한 시현에서 요셉의 의문은 그 해답을 얻게 되었다. 구세주는 그에게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며, 지상의 어떠한 교회도 올바른 교리나 올바른 권능을 지니고 있지 않고, 충분한 복음이 앞으로 그에게 알려지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요셉은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그의 거룩한 시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시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는 목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이 이야기를 일소에 붙이면서 현대에 시현이라든가 계시가 어디 있느냐고 일축해 버렸다. 요셉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를 믿는 사람들과 조롱하는 사람들을 모두 맞게 되었다. 다행히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18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신앙 부흥 운동으로 인하여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이었다.

첫번 시현이 있은 후 3년 반 동안 요셉 스미스는 뉴욕의 농부로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친구들



과 어울려 젊음을 발산하기도 하였다고 그는 후에 말하였다. 그의 천성적인 명량한 성품 때문에 장난을 한 것 이외에는 죄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은 없었으나 그는 자신이 시련을 통하여 받은 권고의 말씀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17세가 된 요셉 스미스는 1823년 9월 21일, 그의 방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방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하늘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한 사자는 자신이 1,400년 전 미대륙에 살았던 니파이인의 마지막 기록자인 모로나이라고 소개하였다. 모로나이의 메시지는 요셉에게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는 근처 숲에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주민의 기록과 그들에게 주신 구세주의 가르침이 기록된 거룩한 판이 묻혀 있다고 말했다. 모로나이는 그날 밤과 또 다음날 아침에 방문하여 같은 메시지를 거듭 말해 주었다. 요셉은 매년 구모라 언덕을 방문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하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마침내 1827년 9월 22일, 그는 판을 받았다.

이 4년이라는 준비 기간 동안, 스미스 가족의 생활은 거의 변화가 없는 일상 생활의 반복이었다. 그들은 빛을 갖기 위하여 일하였다. 그들은 저당을 갚을 수 없어서 세를 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통나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만아들 알빈은 새 집이 완성되기 전에 1823년 11월 19일에 세상을 떠났다. 알빈은 죽기 전에 요셉에게 모로나이의 지시를 충실히 지켜 약속된 사업이 수행되게 하라고 부탁하였다.

가족의 수입을 돕기 위하여 요셉과

다른 가족들은 때때로 노동일을 하였다. 1825년 10월에 요셉은 뉴욕주 베인 브리지에 있는 조사이아 스톨의 집에서 일했는데 버려진 스페인인의 은광에 묻혀 있으리라 생각되는 보물을 찾는 일이었다. 요셉은 마침내 결과 없는 탐색 작업을 포기하도록 스톨을 확신시켰다. 그러나 그에게는 숨겨 있는 보물을 찾는 영력이 있다는 소문이 떠돌게 되었다. 이 일은 요셉 스미스를 불신하려는 무리들로부터 그가 받게 된 일련의 시련을 낳은 중대한 것이었다.

스톨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동안 요셉은 아이작 헤일 가족과 함께 기숙하였는데, 그곳에서 헤일씨의 딸 엠마를 만나게 되어 1827년 1월 18일에 결혼하여 팔마이라 근처의 스미스 농가로 이사해 왔다. 4년이 끝나는 그해 가을에 예언자는 구모라 언덕에서 모로나이로부터 고대 기록을 받았다. 동시에 그는 판과 함께 돌 상자에 묻혀 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투명한 돌의 도움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권능도 받았다. 요셉 스미스는 그것이 가슴판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하였다.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기록을 번역하였습니다.”(교회 정사 4: 537, 웨트워드 편지, 1978년 6월호, 성도의 빛)

요셉이 거룩한 기록을 언자마자 사람들은 요셉에게서 기록을 훔쳐내려고 계획하였다. 예언자는 그 기록판을 통나무 구멍, 통, 구들돌 밑 등을 옮겨가며 숨겼으며, 마침내 그와 엠마는 엠마의 아버지가 피난처로 제공해 준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로 이사하기로 하였다. 요셉과 엠마는 600리나 되는 길을 여행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판의 기원에 대한 요셉의 이야기를 믿었던 부유한 농

장주인 마틴 해리스가 50불을 회사하였다.

번역 사업이 시작되면서 마틴 해리스는 판에 새겨진 문자의 사본을 가지고 미국 동부에 있는 학자에게 가져 갔다. 그는 뉴욕시에서 콜롬비아 대학의 고전 연구 교수인 찰스 안톤 박사와 뉴욕의 사인 사무엘 엘 미켈 박사에게 보이면서 요셉 스미스의 활동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개정된 애굽어를 번역하지 못하였다. 마틴 해리스는 요셉의 사업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왔다. 예언의 성취가 물몬경에 기록되어 있다. (나이 27 : 6-20 참조) 그후 여러달 동안 마틴 해리스는 예언자가 고대 기록의 앞 부분을 번역하는 동안 서기로 봉사하였다. 마틴 해리스는 후에 물몬경의 세 목격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마틴 해리스가 손으로 적은 사본의 첫 116페이지를 빌려 간 것은 1828년 초여름이었다. 그 사본은 해리스의 믿지 않는 아내의 부주의나 속임으로 분실되었거나 도난당했다. 그 결과 잠시 번역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런 다음 요셉은 계시로써 다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시를 받아 요셉은 잠시 엠마를 필기자로 삼았다. 다행히 맨체스터 타운쉽에서 스미스 가족과 함께 기숙하던 순회 교사 올리버 카우드리가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사해 보기 위하여 펜실베니아주 하모니로 온 그는 1829년 4월초에 요셉의 필기자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예언자가 불러주는 대로 커이튼 뒤에서 기록하였는데, 이 렇게하여 물몬경의 대부분을 올리버 카우드리가 기록하였다.

그동안 요셉 스미스는 여러 가지 계시를 많이 받았다. 분명히 주님은 그의

어린 종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교회 조직에 앞서 중요한 사건이 1829년 5월 15일에 일어났다. 기록을 번역하는 동안 요셉과 올리버는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에 대하여 읽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좀더 알고자 하여 그들은 요셉 스미스의 집 근처에 흐르는 사스케하나 강둑의 숲으로 갔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이 나타나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론 신권을 부여해 주었다. 그는 올바른 침례양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이하는 사자의 권고에 따라 요셉과 올리버는 강에서 서로 침례를 주었다. 그때로부터 1829년 6월말 사이에 고대의 사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벨기세택 신권, 다시 말해서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고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권능을 회복하여 주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첫번째 장로요 사도인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승영의 의식을 집행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지기를 고대하면서 요셉은 1829년 7월 1일, 물몬경 번역을 끝마쳤다. 물몬경 번역은 뉴욕주 페이아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 이세의 집에서 완성되었다. 예언자의 사업을 협조하는 신자의 무리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중 3명,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천사가 판을 보여 주었으며, 그들은 물몬경의 실재에 대한 목격자가 되었다. 또한 친지들과 가족으로 된 8명은 판을 만져 보고 그들은 간증을 첨가하였으며, 이것은 모두 물몬경에 기록되었다. 요셉 스미스는

1829년 6월 11일에 판권을 확보하였고, 8월에 팔마이라의 에그버트 비 그랜딘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전을 출판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마틴 해리스가 초판 5,000부에 대한 3,000불을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의 농장 일부를 팔아야 했다. 1830년 3월 말에 최초의 물문경이 배부되었다.

이제 교회가 조직될 때가 되었다. 1830년 4월 6일, 30명 가량의 사람들이 페이지에 있는 휘트머의 통나무 집에 모였다. 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국법에 따라 교회 정식 조직자로서 6명의 이름이 열거되었다. 요셉 스미스 이세,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람 스미스, 피터 휘트머 이세, 데이비드 휘트머, 그리고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가 그들이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교회의 “첫째” 및 “둘째” 장로로 지명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였다.

이같이 단순한 시작이 그뒤에 이어지는 조직상의 구조가 전개될 시작이었다. 여러 가지 신권의 직책이 이룩될 것이었으며, 선교사업을 통하여 교회가 확장됨에 따라 보다 복잡한 관리 체제가 소개될 것이었다. 교회의 이름도 발전 과정을 밟게 될 것이었다. 교리와 성약 20편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려졌다. 이 명칭은 여러해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문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838년 1월 26일에 받은 계시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명칭이 소개되었다(교성 115 : 3-4 참조).

교회가 조직된 직후의 여러 달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다. 일반 종교 단체와

다른 이 것 설립된 교회의 다른 점을 호기심 많은 구도자들에게 설명했다. 물문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부흥의 원리가 점점마다 전달되었다. 귀 기울이는 자는 현대의 계시와 살아계신 예언자의 음성과 신권의 권능이 있는 유일한 참된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중요성과 최후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들었다.

초기 말일성도 선교사들의 열성적인 활동은 조롱과 핍박과 심지어는 폭동까지 일으키게 하였다. 1830년 여름 동안 요셉 스미스는 두 차례나 체포되어 공공질서 파괴 혐의로 구속되었었다. 그러나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무죄로 석방되었다. 결국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피난처를 찾아 뉴욕주를 떠났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의 핍박은 오히려 성도들을 더욱 단합시켜 주었다.

교회 회원은 회부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는 부름에 곧 응하였다. 모든 개종자는 자신이 능력있는 선교사라고 생각하였다. 1829년에 받은 계시에서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받나니.”(교성 4 : 3-4) 교회가 조직된지 2개월 이내에 정식 선교사 체제가 실시되었다. 예언자의 동생인 사무엘 스미스가 최초의 선교사 중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 크게 낙심하였지만 그는 물문경을 배부하였으며, 그가 배부한 물문경은 브리검영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교회에 입교하게 하였다.

새로운 회원은 여러 가지 종파로부터 왔으며, 방방곡곡에서 초기 말일성도 장로들과 접촉하여 개종하게 된 사람들

이었다. 오랜 동안 복음을 찾고 기다리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게 된 초기 개종자 중에 팔리 피 프랫이 있었다. 그는 18세 때 침례 교회에 가입하였다. 여기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그는 4년 후에 캠벨교도가 되었다. 시드니 리그돈의 가르침에 많은 감명을 받기는 했으나 프랫은 여전히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에 대한 의심을 풀 수가 없었다.

1830년, 나이 23세에 그는 오하이오주를 떠나 순회 전도 여행에 나섰는데 뉴욕주 뉴아크 근처에서 물문경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읽고는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믿고 여정을

바꾸어 요셉 스미스를 찾아 팔마이라로 갔다. 그는 개종하여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후에, 이번에는 회복된 복음의 교사로서 선교 여행을 계속하였다.

교회는 이와 같이 시작되었다. 종교적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씩 들쭉 1820년에 요셉 스미스가 처음으로 전파한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니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교회는 기존하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고 주께서 택하신 예언자를 통하여 회복될 것이라는 하늘로부터의 선포였다. 1830년에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

“나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아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비 와이 유 연구 9 : 284)

교리와 성약 독서 과제

1979—80년도 회기년도의 복음 교리반 독서 과제

교리와 성약 1—102편

- | | |
|-----------------------------------|--------------------------|
| 1. 1편 | 20. 43—45편 |
| 2. 요셉 스미스 2서 1—4절 | 21. 46, 50편 |
| 3. 요셉 스미스 2서 5—26절 | 22. 47편 |
| 4. 2편; 요셉 스미스 2서 27—75절 | 23. 48, 49편 |
| 5. 3, 6—10편; 요셉 스미스 2서 59—67, 75절 | 24. 52—56편 |
| 6. 4, 11, 12, 14—16편 | 25. 57—59편 |
| 7. 5, 17편 | 26. 60—62, 75편 |
| 8. 13, 18편 | 27. 63—65편 |
| 9. 19편 | 28. 66—70편 |
| 10. 20편 | 29. 71, 73편 |
| 11. 21—24편 | 30. 74, 77, 86, 91, 113편 |
| 12. 25편 | 31. 76편 |
| 13. 26—28편 | 32. 78—83, 85, 92, 104편 |
| 14. 29편 | 33. 84편 |
| 15. 30, 32편 | 34. 87, 90편 |
| 16. 31, 33—36, 39—40편 | 35. 88편 |
| 17. 37, 38편 | 36. 89편 |
| 18. 41, 48, 51, 72편 | 37. 93편 |
| 19. 42편 | 38. 94—97, 109, 110편 |
| | 39. 98, 99, 101편 |
| | 40. 100, 102편 |

교회사와 세계사 비교 연대표

교 회 사

세 계 사

- 1796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결혼, 버몬트주 턴브리지
- 1801 브리감 영 출생, 버몬트주 워링검
- 1805 요셉 스미스 이세 출생. 버몬트주, 웨론
- 1807 윌포드 우드럽 출생. 코네티컷주, 에어본
- 1808 존 테일러 출생. 영국, 일룬드르프
- 1814 로렌조 스노우 출생. 오하이오주, 만투아
- 1816 요셉 스미스 일세 가족 뉴욕주 팔 마이타로 이주
- 1818 요셉 스미스 일세 가족 뉴욕주 맨 체스타로 이주
- 1820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 1823-27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
- 1827 요셉 스미스 이세와 엠마 헤일의 결혼
- 1829 아론 신권 및 벨기세텍 신권 회복 세 목격자 물문경 판을 봄 물문경 번역 완성
- 1830 물문경 출판, 교회가 조직됨
- 1831 성도를 오하이오주로 집합하라는 계시를 받음

- 1803 미국 루이지애나 영토 구매 영국과 불란서간의 전쟁 발발
- 1804 나폴레옹 파리에서 황제로 즉위
- 1804-1826 라틴 아메리카제국 독립 (1806 영국 노예 무역 금지)
- 1807 최초의 기독교(신교)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 중국 도착
- 1812-1815 1812년 전쟁
- 1814 최초의 증기 기관차 발동
- 1814-1815 비엔나 국회
- 1815 나폴레옹 전쟁 종식
- 1820년대 윌리엄 이 채닝의 유니테리언 (유일신교)운동
- 1823 몬로주의 선언
- 1825 영국에 최초의 철도 개설
- 1829 그리스 독립
- 1830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에서의 혁명 독립, 이태리,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에서 폭동 그리스도의 제자(캠벨교파) 등장
- 1830년대 윌리엄 밀러의 그리스도 재림교 시작
- 1831 벨기에 독립

사진으로 돌아보는 중요한 교회의 유적

나부, 팔마이라, 파웨스트, 커틀랜드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지명이다. 이러한 곳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최초의 예언자였던 요셉 스미스가 살았고, 일했고,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았던 곳이다. 이곳들은 기적과 불신앙, 기쁨과 슬픔, 영적인 시현과 배도가 있었던 곳이다. 교회가 조직되던 초기의 사람들 중에는 대대로 그 이름이 알려질 만큼 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브리감 영, 존 테일러, 팔리 피 프랫, 에드워드 패트리지 등등이 그러한 사람이다. 인디펜덴스, 파웨스트, 커틀랜드 등지에서 많은 성도들은 폭도들과 모반적인 관리들, 그리고 교회 내의 배도자들로부터 시련을 겪었다.

여기에 교회의 역사적인 유적의 현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소개한다. 나부는 성도들이 살았던 때의 도시 모습을 가급적으로 되살려 보려고 많은 부분을 복구해 보았다. 그러나 다른 곳은 거의가 당시와는 크게 변모하였다. 어떤 집은 개조되거나 증축되었다. 대부분의 건물은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던 때의 원래의 건물보다 훨씬 화려해졌다. 어

떤 것은 완전히 파괴된 것도 있고 초석이나 역사적인 표시만이 과거에 건물이 세워졌었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반면에 고요히 흐르는 강물, 비옥한 농토, 완만한 경사가 진 언덕 등은 150년 전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1. 매사추세츠주 탐스필드 (25페이지 상)

탐스필드는 스미스 가족이 여러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서 1771년 7월 12일에 요셉 스미스 일세가 태어난 곳이다.

2. 버몬트주 턴브리지 (25페이지 좌, 중, 하)

스미스 가족 전체는 1791년에 이곳으로 이사했다. 요셉 일세는 25세 때 이곳 턴브리지에서 19세의 루시 맥과 결혼하였고, 이곳에서 알빈, 하이람, 소프로니아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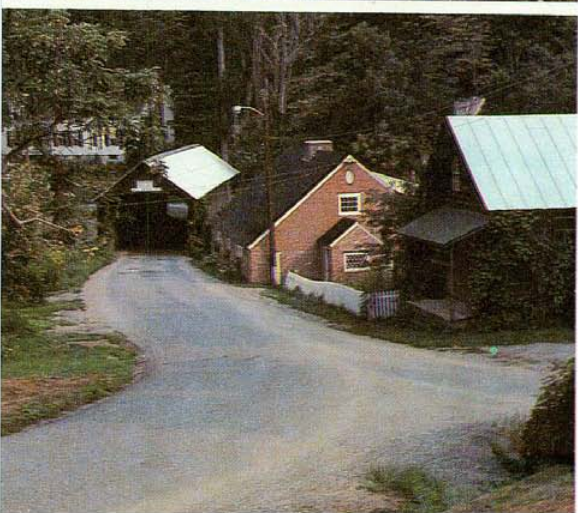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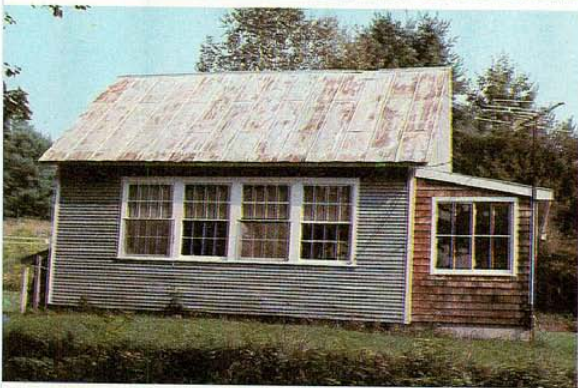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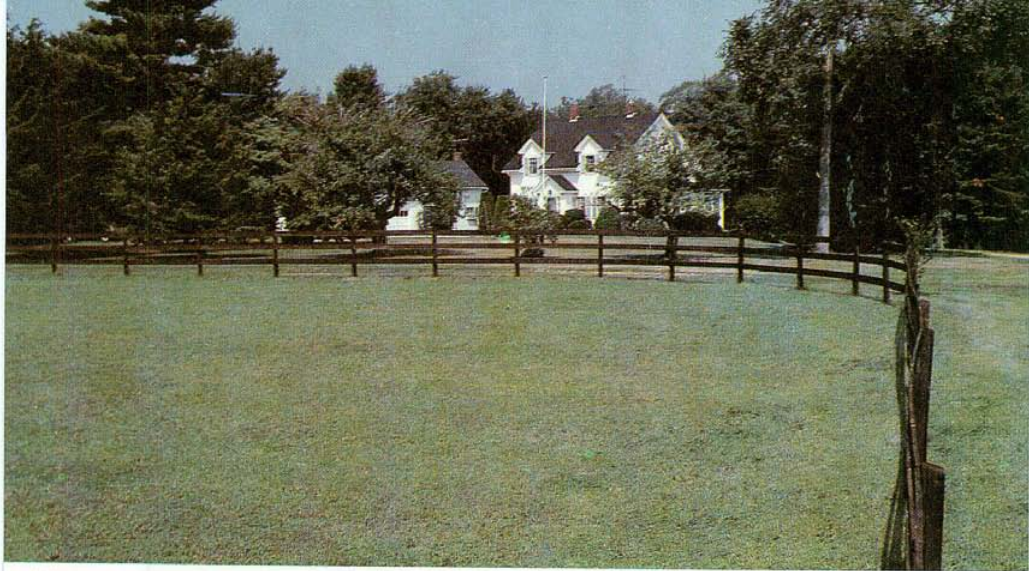
3. 버몬트주 색론 (25페이지 우 하,)

1804년에 스미스가는 재정난으로 색론에서 루시 맥 스미스의 가족으로부터 농장을 세를 내기로 하고 빌렸다. 요셉 스미스 일세는 여름 동안에는 땅을 갈았고 겨울에는 마을 학교에서 가르쳤다. 1805년 12월 23일 요셉 스미스 일세가 태어난 곳은 바로 이 맥 가족의 농장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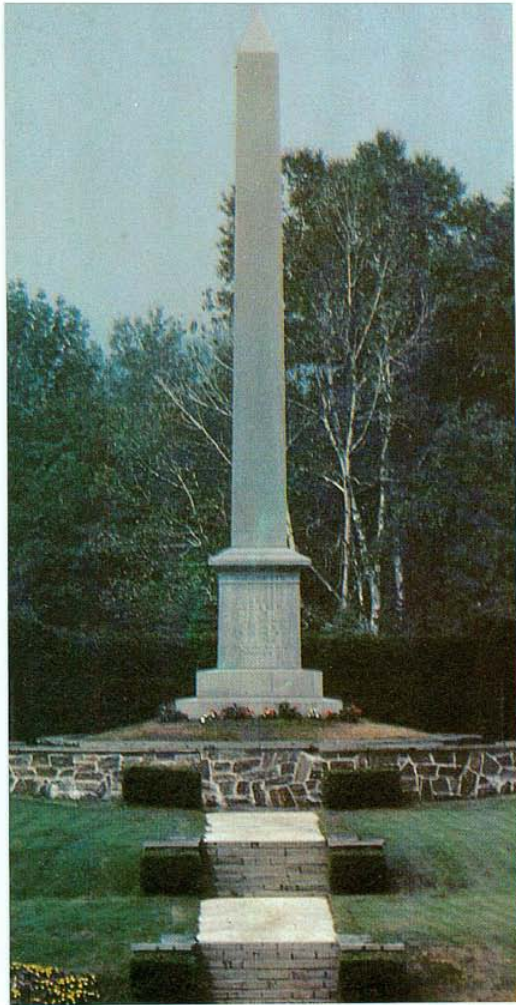
요셉 스미스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38 1/2 피트의 화강암 기념비 (26페이지 좌) (각피트는 요셉 스미스의 생애의 한 해를 나타내 준다)가 이곳에 세워져, 예언자의 조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 의하여 헌납되었다.

4. 버몬트주 놀위치 (26페이지 우, 상)

이곳에서 스미스 가족은 세번을 연거
(42페이지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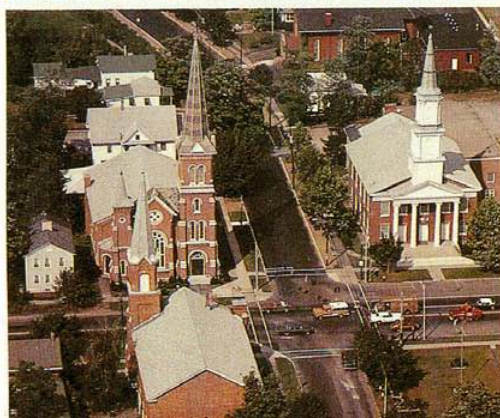


상 : 탐스필드, 매사추세츠, 스미스가 선조의 집, 좌중 : 버몬트주, 팀브리지에 있는 학교, 요셉 스미스 일세는 웨론의 맥 농가에게 살고 있을 때 여기에서 가르쳤을 것이다. 좌하 : 버몬트주, 팀브리지,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이 결혼한 곳. 우하 :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출생지, 웨론, 버몬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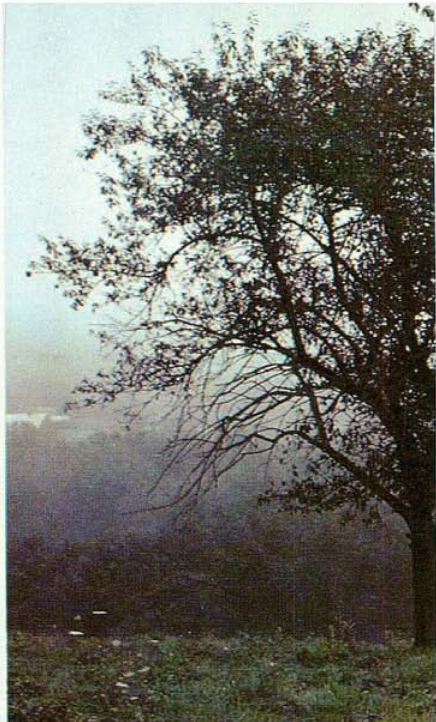


좌 : 버몬트주, 웨론에 예언자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요셉 스미스 기념비.
 상우 : 버몬트주 놀워치, 요셉 스미스 일세의 생가, 중우 : 뉴욕주 팔마이라의 요셉 스미스 이세의 생가, 우하, 네 모퉁이, 뉴욕주, 팔마이라,

P. 27 좌상 : 스미스가 근처에 있는 거룩한 숲, 뉴욕주, 팔마이라, 좌하 : 스미스 농가의 개울, 뉴욕주 팔마이라, 여기서 최초의 침례 의식이 거행되었을 것이다. 우 : 요셉 스미스 일세의 집에서부터 거룩한 숲에 이르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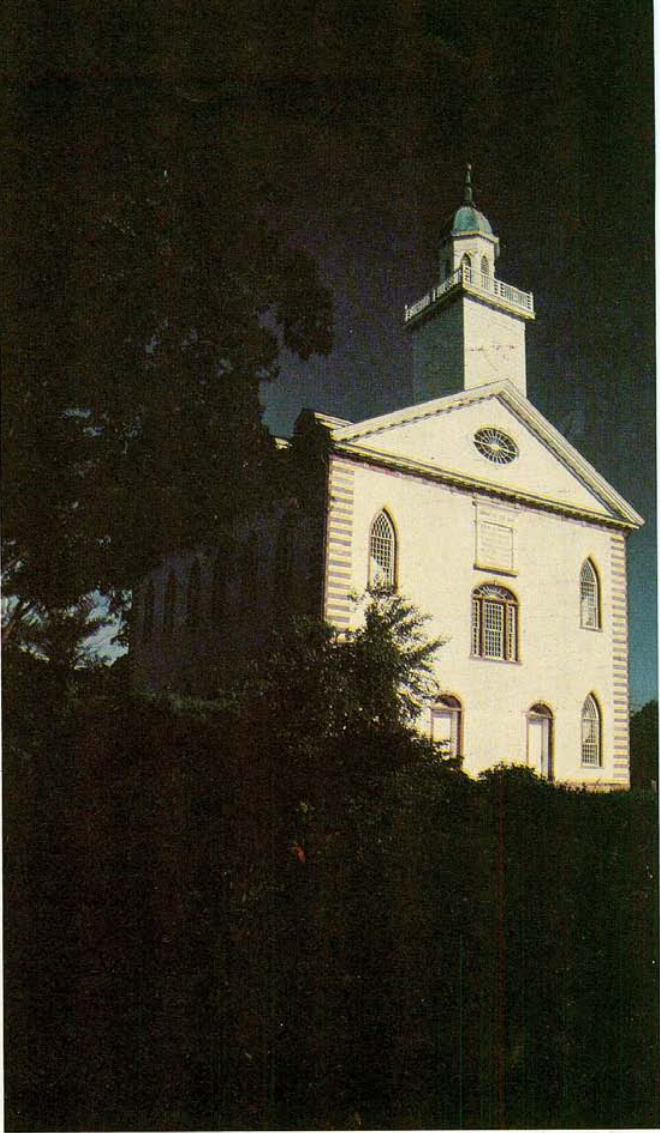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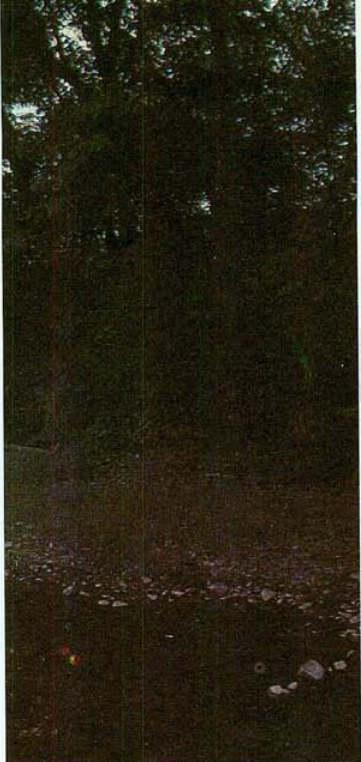
좌상 : 마틴 해리스의 집, 뉴욕주 팔마이라. 이 1849년도 조약들 집은 마틴 해리스의 생가가 아니다. 원래의 집은 소실되었다. 좌하 : 펜실바니아, 하모니의 사스케하나 강변에서 이루어진 아론 신권의 회복 기념비. 우상 : 펜실바니아주 하모니 근방,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그림이 37 페이지로 계속된다.) 하우 : 뉴욕주 페이엠티의 피터 휘트머일세의 농가. 1830년 4월 6일이 이곳에서 교회가 조직되었다. 뮌나우 오두막집은 사진 하단 우측 모서리에 있다. 이 오두막집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그림이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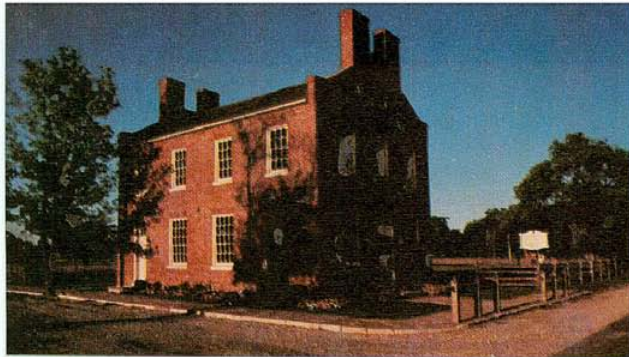
우하 : 펜실바니아, 하모니의 요셉과 엠마의 첫번째 집근처에 흐르고 있는 사스케하나강 공중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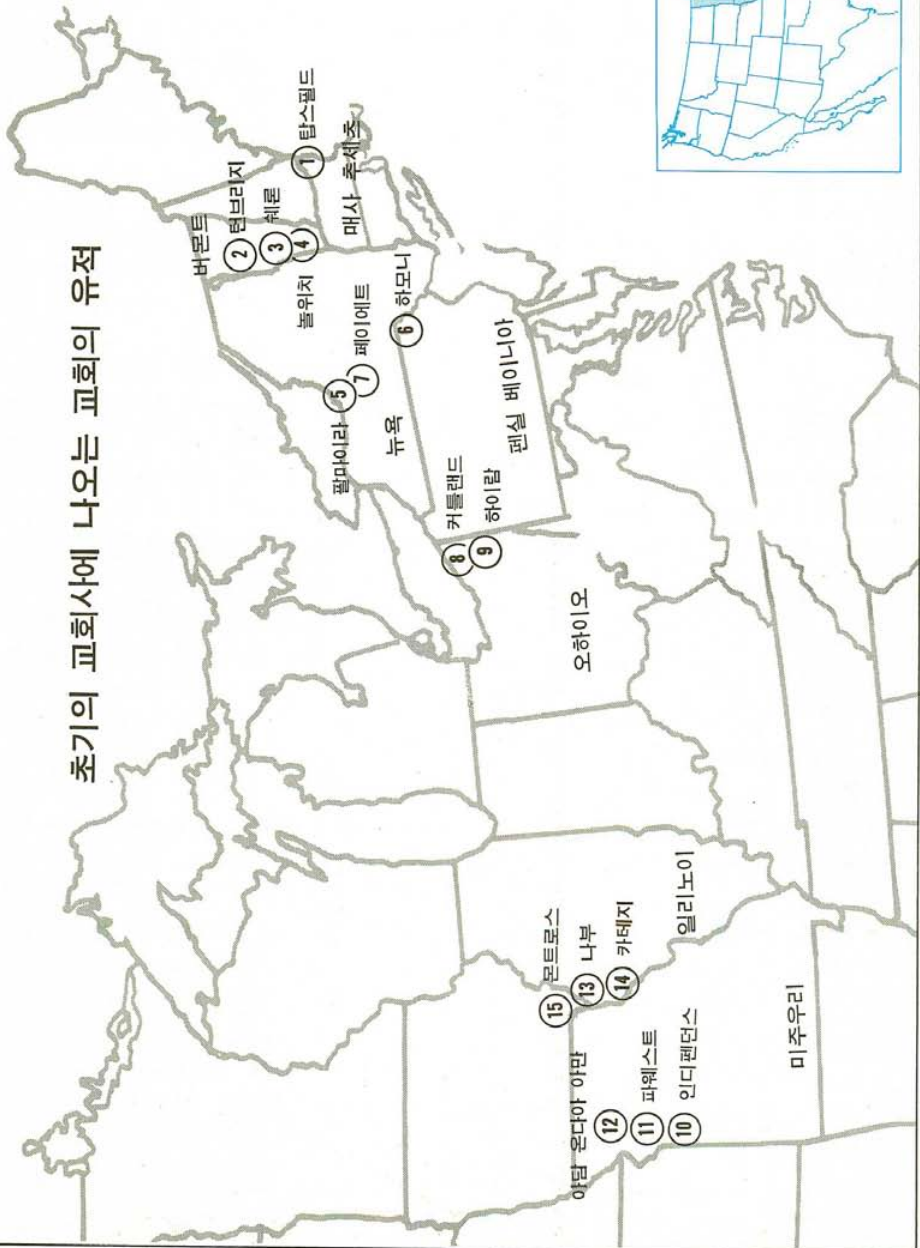


p. 38 좌하 : 사스케하나 강 이 근처에서 아론 신권이 회복되었다. p. 38 좌중 : 오하이오주 하이립, 존 존슨의 집 p. 38 우하 : 요셉 스미스 일세의 집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p. 38 우중 : 요셉 스미스 이세의 상점, 이 위의 다락 방에서 예언자의 학교가 열렸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p. 39 좌중 : 미주우리주, 인디핀던스 신전 부지, p. 39 좌하 : 미주우리주 파웨스트의 신전 부지, p. 39 우 : 커틀랜드 신전



좌상 : 일리노이주 나부의 칠십인 홀 여기서
 장차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기술을 가르쳤다. 좌중 : 칠십인의 홀 내부.
 우상 : 아담 온다이 아만, 우중 : 카테지 감옥
 일리노이주 카테지, 여기에서 1884년에 요셉
 스미스 이세와 그의 형 하이람이 순교당하였
 다. 하 : 몬트로스 크로싱, 일리노이주, 미시
 시피강 횡단.

초기의 교회사에 나오는 교회의 유적



(24페이지에 계속)

퍼 농사에 실패를 보고 뉴욕주 팔마이라로 이주하게 되었다.

5. 뉴욕주 팔마이라 (26페이지 우, 중)

요셉 스미스 이세의 나이 10세때 스미스가는 팔마이라로 이사했다. 2년 후에 스미스가는 거의 잡목으로 무성한 개간되지 않은 땅 100에이커를 매입하였다. 처음에는 통나무 오두막집에서 살았으나 몇 년 후에는 맏아들 알빈이 지은 9개 방이 있는 큰 집에서 살게 되었다.

뉴욕주 네 모퉁이, 팔마이라 (26페이지 우, 하)

팔마이라에서 메인 스트리트와 니번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곳을 이 지역에서 “네 모퉁이(포코너스)”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감리교회, 장로교회, 영국 성공회, 침례교회가 각각 한 모퉁이씩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각 교회의 건물 연대는 1820년 봄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요셉으로 하여금 숲으로 가서 “어느 교회가 옳습니까?”라고 간구하게 했던 종교적인 혼란을 말해주는 것 같다.

성스러운 숲 (27페이지 중, 상)

1820년 봄, 요셉 스미스가 기도드리러 들어갔던 성스러운 숲은 그의 부모의 집으로부터 서쪽으로 1/4 마일 떨어진 곳이다. 그는 지상의 어떠한 사람보다 신화와 악마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숲을 나왔다.

구모라 언덕 (27페이지 우)

1823—27년 동안 받은 지헌에서 요셉은 후에 구모라라고 알려진 팔마이라에서 남쪽으로 4 마일 떨어진 곳에 길게 이어진 언덕으로 가도록 지시 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금판이 담겨 있는 돌 상자를 보았다.

마틴 해리스의 농장 (28페이지 좌, 상)

물문경 번역이 완성되었을 때, 팔마이라의 부유한 농부였던 마틴 해리스는 그의 농장을 3,000불에 저당잡혀서 물문경 첫판 5,000부에 대한 출판비를 충당하였다. 그는 후에 세 목격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스미스 농가의 독 (27페이지 중, 하)

초기에 이곳에서 침례가 베풀어졌을 것이다.

6.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 (28페이지 좌, 하우, 상, 37 페이지 상, 우, 하. 38 페이지 상)

하모니는 엠마의 출생지이다. 1827년 그들이 결혼한 후 요셉은 장인으로부터 13 1/2 에이커의 땅을 200 불에 매입하였다. 그래서 요셉 부부는 이 대지에 세계의 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였다. 이것이 요셉과 엠마의 첫번째 집이었다. 근처 사스케하나강 둑에서 아론 신권이 회복되었으며, 곧 이어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되었다.

7. 뉴욕주 페이지트 (28 페이지 우, 하, 37페이지 좌, 하)

1830년 4월 6일, 화요일에 요셉 스미스 이세,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람 스미스, 피터 휘트머 이세, 데이비드 휘트머, 그리고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는 뉴욕주, 세네카군, 페이지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 일세의 20 평방 피트 정도의 통나무집에 모여 교회를 조직하였다. (28페이지 사진에서 교회가 조직된 곳은 백색의 큰 건물이 아니라 사진의 오

른쪽 하단에 있는 조그마한 곳이다.)

페이에트에서 물몬경의 세 목격자는 거룩한 간증을 받았다. 또한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계시 중 20가지를 예언자는 이곳에서 받았고 값진 진주에 실려 있는 모세의 말씀과 에녹의 예언도 이곳에서 받았다.

8.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38페이지 좌 하, 우 중, 우 하, 39페이지 우)

1830년 겨울, 예언자는 약 200명이 되는 성도들을 이끌고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가라는 계시 (교성 37, 38편)를 받았다.

예언자는 커틀랜드에 거주하면서 46개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였다.

1832년 12월 초에 주님은 이곳에 신전을 짓도록 명하였다. 신전은 1836년 3월 27일에 헌납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836년 4월 3일에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이 있었다. 연단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전을 받으셨고 뒤이어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방문하여 그의 열쇠를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에게 맡기셨다. 신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커틀랜드 시절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되었고, 대관장단이 조직되었으며, 요셉 스미스 일세가 최초의 교회 축복사가 되었으며, 커틀랜드 스테이크가 조직되었고, 시온의 진영이 조직되었으며, 십이사도 평의회와 칠십인 제일 평의회가 조직되었다.

9. 오하이오주 하이람 (38페이지 좌 중)

1831년 가을부터 1832년 4월까지 예언자 요셉은 하이람에 있는 존 존슨의 집에 있었다. 예언자는 이곳에서 교회를 인도했고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

며, 성경의 영감역에 관한 일을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대회가 열렸으며, 대회 참석 회원들은 현재의 교리와 성약인 계명의 책을 출판하기로 지지하였다.

1832년 3월, 하이람에서 폭도들은 예언자 요셉과 시드니 리그돈을 끌고 가서 온몸에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쫓으며 잔인하게 다루었다.

10. 미주우리주 인디펜덴스(39페이지 좌 중)

예언자가 1831년 7월 인디펜덴스로 왔을 때 그는 이곳이 “시온성”으로 임지되고 성별된 것임을 밝혔다. 이곳에 신전을 세우기로 되어 있었다. 교리와 성약 57편부터 60편까지의 계시를 이곳에서 받았으며 신전 부지로 6327에이커의 땅을 1831년 12월에 매입하였다. 그러나 다음 2년 동안의 핍박으로 인해 말일성도들은 신전 건축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

11. 미주우리주 파웨스트(39페이지 좌 하)

파웨스트는 1836년부터 1839년까지 교회의 본부였으며, 교리와 성약 114-115편과 117-119편을 이곳에서 받았다. 1837년 여름에 신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1838년 7월 4일에 모퉁이돌을 놓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교회의 6대 대관장인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이곳에서 1838년 11월 13일에 태어났다.

12. 미주우리주 아담 온다이 아만(40페이지 우 상)

1838년 5월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계시를 받아, 스프링 빌 근처를 아담이

육신을 입기 3년 전에 그의 후손을 모아 축복하였던 곳이라 하였다. 이곳은 앞으로 언젠가에 “그가 다시 그의 자녀를 함께 모아 인자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될 곳”이기도 하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7 페이지; 교성 116편; 107 : 53; 단 7 : 9-14)

13. 일리노이주 나부 (40페이지 좌 상, 좌 중)

1839년부터 1846년까지 나부에서 성도들이 누린 이 기간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기간이었다. “아름다운 곳”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인 나부는 미시시피 강가의 조그마한 커머스트라 하는 마을에서 시작되어 인구 12,042명을 헤아리는 대도시로 발전하였다. 이곳에서 성도들은 좋은 집을 지었고 미국 개척지의 생활이 전성하였다.

나부는 교회 조직이 강화된 시기를 나타내는 곳이다. 신전이 계획되어, 건립되었고, 헌납되었다. 예언자 요셉은 1842년 5월 4일에 그의 상점 뒷 방에서 선택된 교회 지도자들에게 엔다우먼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후에 가능한 한 많은 성도들에게 나부 신전에서 베풀어졌다.

1842년 3월 17일에 상호부조회가 교회 여성을 위하여 조직되었다. 1839년에 나부에서 와드라는 교구 명칭이 소개되었으며, 3개 와드가 조직되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축복사 하이람이 순교당한 직후, 나부는 “요셉의 성”이라고 불리었다.

그러나 1846년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자 나부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었다. 신전은 방화범들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벽은 태풍에 무너졌다.

14. 일리노이주 카테지 감옥 (40페이지 우 중)

카테지 감옥은 1844년 6월 27일, 요셉 스미스 이세와 그의 형 하이람이 학살당했던 곳이다. 그들은 반역죄라는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었다. 무장한 폭도들이 갑자기 감옥을 습격하여 두 형제를 사살하였다.

15. 일리노이주 몬드로스 횡단 (40페이지 하)

1846년 2월,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서부로 여행할 때 날씨는 몹시 추워 포장 마차의 긴 행렬은 약 1 마일 가량의 단단한 얼음 위로 미시시피강을 건넜다.

“그가 다시 그의 자녀를 함께 모아
인자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될 곳”

우리 시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1800년대 영국의 목사, 존 윌슨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애굽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50개의 단어가 담긴 15 평방 센티미터 크기의 양피지가 발견되어야 한다면, 이 말은 1세기 이래 지금까지 출판되었던 모든 책보다 더 중요한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증인을 머리말에서 인용, 제 2권, 비 에이지 로버츠 장로)

교리와 성약에서 가장 흥미있는 사실의 하나는 여기에는 구세주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리와 성약보다 더 가치있는 책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성도들의 시대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물론 교리, 제 2판, 206페이지)

교리와 성약을 읽어 보면,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위로하고 꾸짖으시며, 오랫동안 잃어버려졌던 영광스러운 교리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리고 준비가 된 대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실질적인 교회의 조직

을 세우신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교리와 성약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시드니 비 스페리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님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젊은 예언자에게 회복된 교회를 조직하는 것과 교회 회원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리와 교훈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야 했다. 다른 교회의 교리와 훈계로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새 술은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다.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주님의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교회가 지도자들의 주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 (교리와 성약 주해서, 북크래프트사, 1960년 17페이지)

“이 책에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주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교회 방침과 조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회복된 교회가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성 1:30)임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교리와 성약은 아담의 타락, 구속, 회개, 침례, 신권, 결혼, 성신,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인간의 경제적인 복지, 인간의 영원한 운명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와 개념을 보다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이해해야 할 이와 같은 지식이 이 현대의 경전에 나와 있다.”(교리와 성약 주해서, 15, 16페이지)

교리와 성약에는 계시자가 주어지는 갖가지 방법에 대한 예가 나와 있다. 곧 예언자에게 주는 영의 속삭임(교성 20편), 우림과 둠뎀으로(교성 3편), 천사를 통하여(교성 2편), 시현을 통하여(교성 76편) 등등이 그 예이다.

여기에는 주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신 것도 기록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에는 해설은 거의 없고 모두가 값진 교리나 사상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독을 하여야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특집에서 우리는 교리와 성약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회사를 아는 것은 많은 계시가 어떠한 환경에서 주어지고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성도의 첫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교회사에 관한 기사를 읽고자 한다. 가능하면 교리와 성약의 각 편과 2편에 담긴 교리에 대한 통찰력까지도 제공해 줄 것이다. 예로서, 이번 호에서는 “주님의 서문”이라는 제목으로 교리와 성약 1편에 대한 개관을 보내려 한다.

교리와 성약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계시의 원리를 증거하는 경전이다. 다른 세대에 대하여, 다른 세대에 의하여 기록된 다른 경전도 역시 우리에게 중요하고 진실한 것이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은 특별히 우리 세대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

주님의 서문

교리와 성약에 거는 기대

로이 더블류 독시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공부하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 메시지는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시대, 곧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주님이 친히 그의 메시지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에 대한 공부가 교리와 성약 1편에 나와 있다. 이 계시는 1831년 11월 1일 “계명의 책”이 신권 소유자들에 의하여 채택되었던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열린 대회에서 주어졌다.

주님은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교성 1:1)에게 말하는 이가 곧 자신임을 말씀하시면서 1편의 계시를 주셨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교성 1:2)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곧 알 수 있다.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인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교리와 성약 1:4)

또한 계시는 “세상의 주민”(교성 1:6)에게 출판하게 되었다.

주님의 종들은 그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땅에서와 하늘에서 인봉할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하도록 되었다. 이 권세에 의해 의로운 사람에게 영생이 인봉될 뿐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후에 주님의 종을 반대하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정죄가 인봉될 것이다. (교성 1:8-9) 주님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저들이 이웃을 헤아린 그 헤라림에 따라 헤아리”(교성 1:10)실 것이다.

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경륜의 시대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교리와 성약 1편 11-16절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땅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한 주께서 진노하시고 주의 겸이 하늘에 셋기었은즉 땅의 주민 위에 떨어지고

“주의 팔이 나타나리니,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때 바빌론처럼 파멸하리라.”(교리와 성약 1:11-16)

이 메시지가 이 마지막 경륜 시대의 백성들에게 대하여 주어지게 된 이유는 (1)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준비시키게 하기 위함이다(교성 1:11-12) (2) 세상의 배도적인 현상 때문이며(교성 1:15) (3) 인간이 우상을 세웠기 때문이다. (교성 1:16)

17절부터 23절까지는 누구를 통하여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이 위대한 사건으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요셉 스미스를 이 경륜의 시대의 머리로 부른 것으로부터 나온 결과일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념에서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올 수 있다. (1) 교회의 역사는 주님의 이 같은 약속들을 명백히 증거하는가? (2) 이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 내가 참여하였는가?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제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제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으니, 이 모두는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일렸으며, 세상의 약한 것이 나아와 능력이 있고 강한 자를 쳐부술 것이요, 이로써 사람이 자기 이웃을 훈계하지 아니하며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며,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

“신앙이 땅에 증가되게 하며, 나의 영원한 성약이 이루어지게 하며,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더라.”(교리와 성약 1:17-23)

여기에서 1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님의 제명을 준 “다른 자”들이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도울 사람들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이미 부름을 받았고 계시로써 제명을 받았다. 그러

한 사람은 올리버 카우드리, 시드니 리그든, 하이람 스미스, 팔리 피프렛, 올슨 프랫 등등 여러 사람들이다.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이 계명은 나의 것이요, 미약한 나의 종들에게 저희의 말로 준 것이니, 이는 저들로 이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저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며 알게 하기 위함이요,

“지혜를 구하였으며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

“죄를 지었으며 회개하기 위하여 징계받게 하려 함이요,

“겸손하였으며 강하게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받게 하며 때때로 지식을 얻게 하려 함이요”(교리와 성약 1:24-28)

24절부터 28절까지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봉사의 부름을 받아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자의 생애에 어떠한 일이 이미 성취되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성취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그 축복을 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들의 잘못이 시정된다. 구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죄를 범하면 징계받고 회개한다. 겸손을 통하여 힘과 지식을 얻게 된다. 오늘 교리와 성약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을까?

“참으로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제가 니파이인의 기록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써 물문경을 번역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요,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이 이 교회의 기초를 닦아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 희미하고 어두운 때서 이끌어

내어 온 땅 위에 세울 권능을 갖게 하려 함이니,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느니라. 기뻐한다 함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함이 아니요. 교회 회원 전체를 가리켜 말함이니,

“나 주는 털끝 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받았던 빛마저 빼앗기리니, 이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1:29-33)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다른 자들이 그를 돕도록 임명되었다는 계속되는 메시지에서 주님은 그의 예언자가 물문경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성 1:30)를 이룩할 권능을 받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세상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교회의 회원들은 물론 세상의 주민들의 마음에도 의심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주님의 이같은 선포는 첫번 시현에서의 가르침과 영생으로 이끄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이미 명시해 준 많은 계시의 확실성을 더해 주고 있다.

또한 주님은 그의 교회 회원 모두에 대하여 기뻐하셨으나 교회 각 개인에게는 그들의 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이 밝혀졌다.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 곧 교회의 회원은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라셨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털끝 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교성 1:30)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32절) 반대로, 빛을 받았던 자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영을 잃게 되는데 “이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교성 1:33)

교회와 이 땅의 주민에게 주신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열어 준 이 위대한 계시를 끝마치기 전, 주님은 다시 근본적인 목적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다. 주님은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음성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가 34-36절에 다시 언급되어 있다.

“...나 주는 이 일을 기꺼이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는 내가 사람을 의모로 취하지 아니하며 모든 자로 하여금 그 날이 속히 임하는 줄 알게 하려는 자인 연고라.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가 임박하였도다.

“그러나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아이두미아 곧 세상을 심판하려 오시리라.”(교리와 성약 1:34-36)

“아이두미아”라는 용어가 계시에서 “세상”이라는 의미로 정의 되었음을 유

의한다. 이것은 16절에서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빌론”과 동의어이다. 아이두미아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뿌리 깊은 원한을 갖고 있던 주민의 나라로 알려졌다.)

교리와 성약을 연구하는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가 그 원리대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마는 악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안다. 또한 최후의 심판이 세상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가장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 전쟁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예언되었음을 알고 있다.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평화가 지상에서 박탈당하였다”는 말로 되어야 할지에 대한 예언은 모든 말일성도가 현재의 세계의 상태를 보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성 1:35)

주님의 계시의 서문인 교리와 성약 1편은 이제까지 주어진 계시가 모두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기록은 참되며 영원토록 불변하느니라. 아멘”이라고 간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짐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교리와 성약은 고매의 진리를 확인해 준다. 또한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인간의 운명과 급박한 미래의 운명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훌륭한 원리들이 담겨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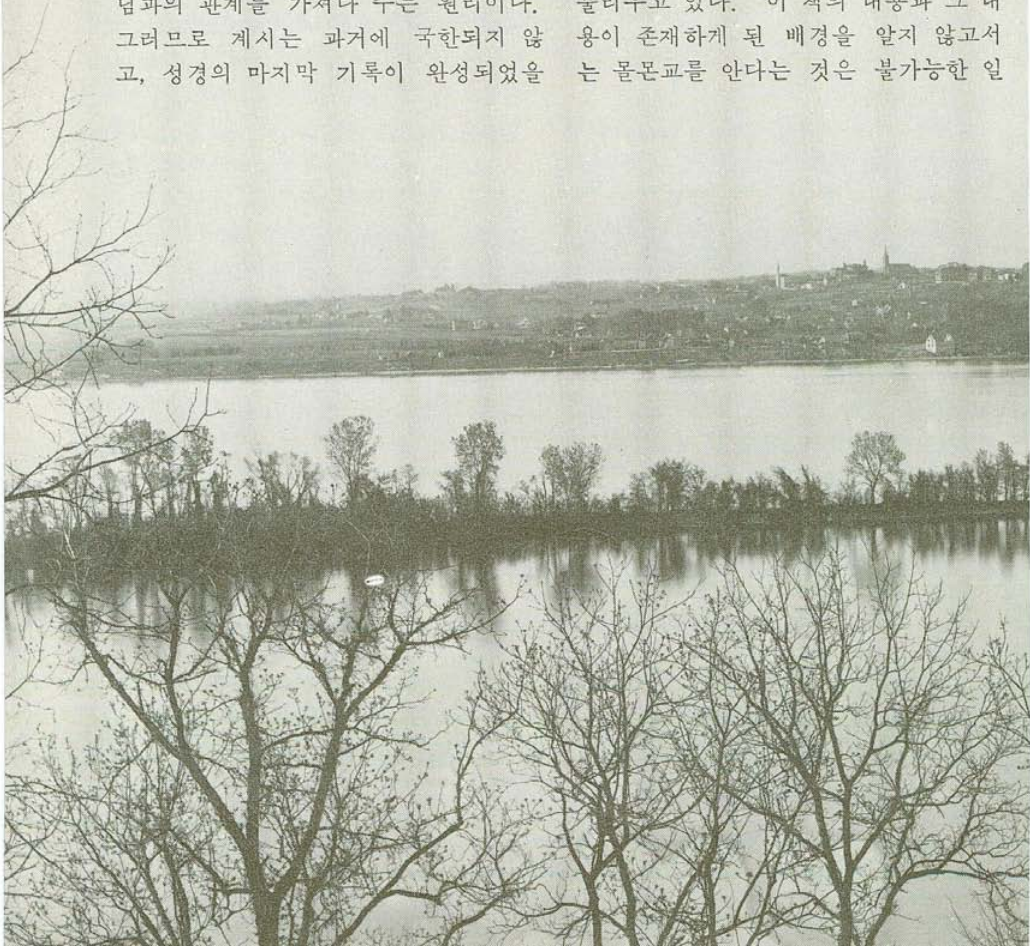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
파하게 하였으니, 이 모두는 예언
자들이 기록한 바가 성취하려 함이
라(교성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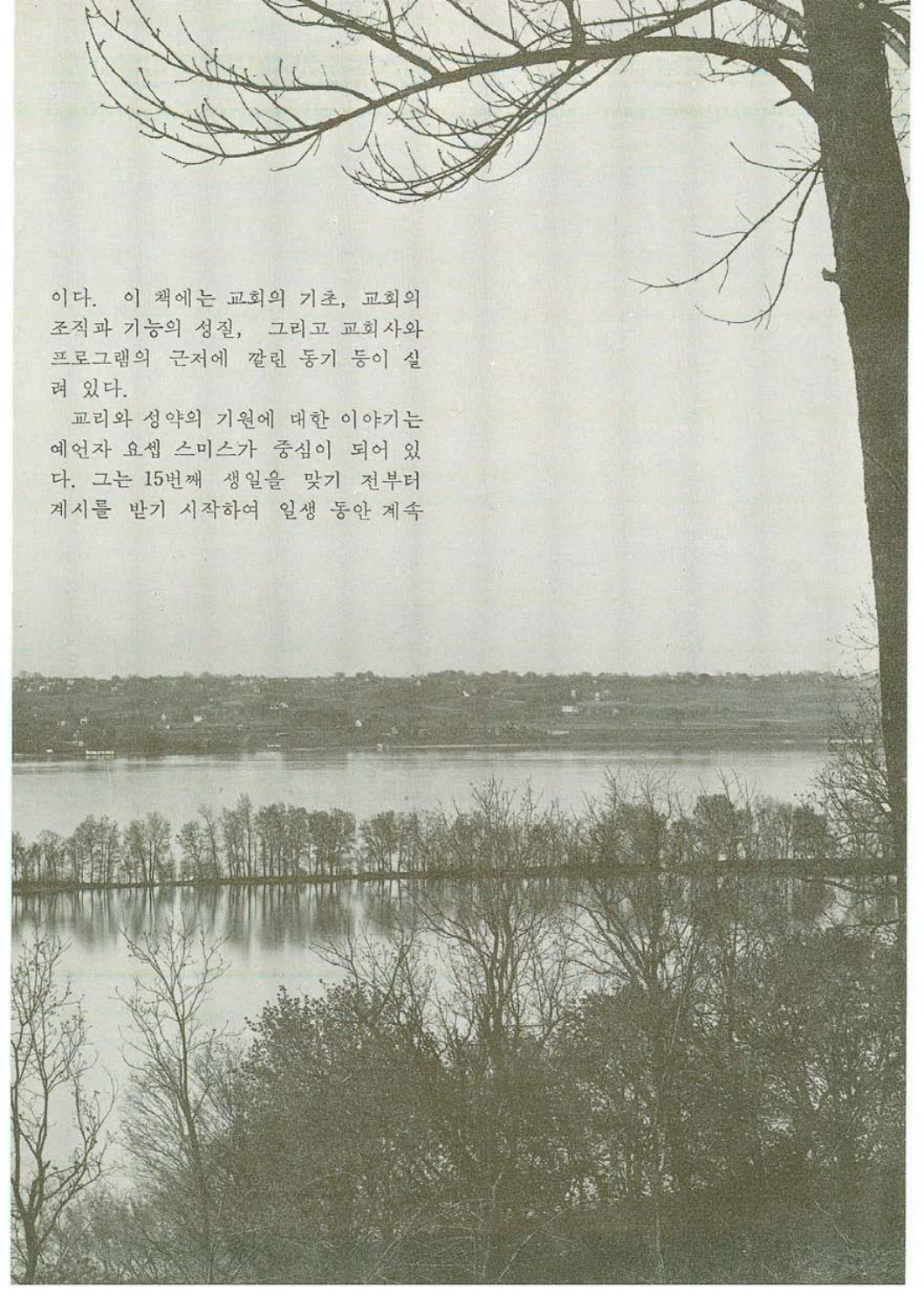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의 역사적 배경

윌리엄 이 베틀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특 징의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말일성도에게 있어서 계시는 지상의 다른 여러 세대에 일어났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다 주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계시는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 완성되었을

때 끝난 것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계시를 받는다는 외침이 다만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말일성도 책자 중에는 이 말일에 주어진 계시로 이루어진 책이 있다. 이 책은 교리와 성약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 책의 내용과 그 내용이 존재하게 된 배경을 알지 않고서는 몰몬교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다. 이 책에는 교회의 기초, 교회의 조직과 기능의 성질, 그리고 교회사와 프로그램의 근저에 깔린 동기 등이 실려 있다.

교리와 성약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는 15번째 생일을 맞기 전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하여 일생 동안 계속

제시를 받았다.

요셉이 보다 중요한 제시를 기록하기 시작한 때는 확인하기 어렵다. 보다 덜 중요한 제시는 일생 동안 기록하지 않았다는 정도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1830년 봄, 예언자는 물론경, 신권의 회복 그리고 교회 설립에 관계되는 말을 계기로 기록하게 되었다.

1830년 4월 6일, 교회를 조직할 때 예언자는 교회 회원 가운데 역사가를 임명하여 모든 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게 하라는 제시를 받았다. (교성 21편 참조)

올리버 카우더리가 “교회 역사가”로 성별되었다. 1830년 6월 9일에 열린 교회 대회에서 그는 다른 임무 때문에 해임되고 존 휘트머가 이 직에 임명되었다. 불행히도 이들이 작성한 기록은 간절하여 불완전한 것이었다. 교회가 조직된 후부터 예언자 요셉은 충실하게 일지를 작성하고 갖가지 서신과 문서를 모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교회사를 편성하고 쓰는데 값진 자료임이 판명되었다.

1830년부터 1831년 사이에 요셉은 보다 중요한 제시를 계속 받아 기록하였다. 1831년 가을에 그는 앞서 기록한 제시와 함께 모든 제시에 번호를 매겨서 하나의 책으로 출판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그러한 목적을 갖고 요셉은 1831년 11월 1, 2일,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신권회를 소집하였다. 이 모임에서 그는 그의 제시집이 경전으로 채택되고 제명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모임의 기록으로는 이 제시집을 얼마나 연구하였는지에 대하여 분명하지가 않다. 모임 기록에서 참석한 몇몇 회원들이 비평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

평의 일부는 요셉 스미스가 당시 모인 그룹 앞에서 받은 제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요셉 스미스가 받은 대부분의 제시는 낮에 받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받았다는 점이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어두운 골방으로 혼자들어가거나 밤에 혼자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는 추종자들 앞에서 기도하였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예언자를 통하여 주어지거나, 그들이 듣는 동안 그가 받아 써서 서기에게 전하였다.) 이때에 받은 제시는 교리와 성약 1편 24절에 나와 있다.

“보라, 나는 하느님이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이 제명은 나의 것이요, 미약한 나의 종들에게 저희의 말로 준 것이니, 이는 저들도 이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의 말로 표현된 것이다. 예언자의 말이 틀렸거나 불법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그러한 잘못이 발견되어 수정될 때까지 활자화된 제시의 책이며 불법적인 잘못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잘못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러하듯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제시에는 인간의 요소가 들어 있게 된다. 시인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름다운 시의 구절로 옷을 입혀 주고, 시편 작가는 가락을 붙여 주는가 하면 산문 작가는 자신의 문체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이삭, 예레미야, 미가, 아모스, 하박국 등의 기록이 자기 문체나 표현 양식에 있어서 다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의 말로써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인류가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고대의 경전이나 현대의 경전에서, 문법상의 잘못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같은 발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감을 덜어 주어서 신앙을 잃게 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1831년 11월 1일 오하이오주 하이람의 조그마한 모임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거나 어떤 빛을 보았거나 영혼에 어떠한 느낌을 느껴 예언자가 그의 필기자에게 제시로써 기록하게 한 것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시된 여러 가지 기록과 전해진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의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떤 계시는 예언자의 표현 방식이 너무도 두드러져서 윌리엄이 볼레른은 요셉이 소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의 많은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쓴 것이라고 요셉에게 대하여 공공연하게 대항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회의심을 가질 수 있는 느낌으로 대항한 볼레른의 도

이 계명은
나의 것이요,
미약한 나의
종들에게
저희의 말로 준
것이니
이는 저들도
이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교성 1 : 24)

전은 예언자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 도움을 청하게 하였다. 그가 소리내어 기도를 드렸는지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하여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그 결과로 다른 또 하나의 계시를 받았다.

“나 주는 너의 앞에 있는 이 계명의 진실성에 관한 간증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지켜 보아 왔고 저의 말을 너희가 알며 저의 불완전함을 아나니, 이에 너희는 저의 말보다 뛰어나게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마음속으로 구하였도다. 이것 또한 너희가 아는 바로다.

“너희는 계명의 책에서 가장 적은 것을 골라 내고 너희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자를 지정하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정된 계명과 같은 글을 지어 낼 수만 있다면 계명이 참된 줄 알지 못한다는 너희의 말을 용납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선정한 계명과 같은 글을 지어낼 수 없을 때 그 계명들이 참되다고 간증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받으리라.

“이는 너희가 계명 중에는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며 또 의로운 것은 위 곧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앎이니라.”(교리와 성약 67 : 4-9)

위의 말씀은 계시에 대한 독특한 시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모든 사색가에게도 목표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주 소개되고 있다. “자, 나오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자.”(교성 50 : 10)

볼레른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 그 목표를 받아들였다. 그는 대회를 마친 후 그의 방으로 혼자 들어

가서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와 같은 글을 쓰려고 하였다, 11월 2일에 그는 다시 대회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자와 형제들과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는 계시를 쓸 수 없었다. 아무리 애써 봐도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처럼 들리게 글을 쓸 수 없었다. 이 문제를 실제로 시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지 못한 사람은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일단 적으면 그것이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의견과 같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글이 문학적 또는 교육적인 가치는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면 계시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그 글이 이미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상과 지

식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며, 같은 시험으로써 계시임이 틀림없을 경우에는, 이 새로 발견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물레튼의 경험과 간증은 하이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한 사람씩 일어나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셉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렸다. 이들의 간증이 끝난 후, 대회는 계명의 책으로써 계시를 출판하기로 승인하고,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미주우리주 인디펜덴스로 가서 출판을 관리하도록 임명하였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즉시 임무를 수행하려 떠나지 않았다. 겨울이 곧 닥칠 것이었고 눈으로 덮인 수천 마일의 광야 여행은 쉬운 여행이 아니었다. 1833년 여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계명의 책

커틀랜드 신전



의 인쇄지가 모여 겨우 읽을 수 있게 제본되었다. 미주우리주 인디펜덴스의 더블류 더블류 펠프 인쇄소의 수동 인쇄기로 인쇄하는 작업은 느리고 지루했다. 책 표지를 위한 자료가 없었으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1833년 7월 20일, 폭도들이 인쇄소로 쳐들어와 인쇄기를 가져 가고 조판을 었어 버리고 인쇄물과 원고의 대부분을 태워버렸다. 인쇄 일을 하던 장로들 중 한 사람은 폭도들이 현관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계명의 책 원고를 한 뭉치 끌어 안고는 뒷문으로 빠져 나와 오래된 헛간 짙더미 밑에 숨겼다. 약 20여 개의 계시가 담긴 그 원고는 보존되었다.

계명의 책의 출판은 효율적으로 중단되었다. 다른 인쇄기를 구입할 즈음에 성도들은 또다시 재슨군에서 추방 당하

였다. 계명의 책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계시가 주어졌다. 좀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인쇄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요셉 스미스 대관장 보조인 올리버 카우드리, 보좌인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데릭 지 윌리엄스로 구성된 위원회가 1834년 8월 대회에서 임명되어 새로운 계시의 책을 선택하고 편집하도록 지명받았다. 1835년 8월 17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열린 대회에서 이 위원회는 첫번째 보고를 하였다. 계시 이외에 여러 문제가 포함되고 교회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은 몇 가지 계시가 삭제된 기록집이 대회에서 선보였다.

위원회가 계명의 책이라는 명칭보다 책의 내용을 보다 잘 묘사한 제목으로 선정한 교리와 성약이라는 새로운 책명

요셉 스미스 일세의 생가, 뉴욕 팔마이라



이 제언되었다.

계명의 책은 1831년 11월 대회에서 계획된 것과 지극히 다른 환경과 원조 하에 출판될 예정이었다. 몇 개의 사본 중 한 부는 후에 교회 대관장이 된 윌 포드 우드럽의 수중에 들어갔는데, 우드럽 대관장은 그것을 교회 역사 도서관에 기증하였고, 교회 역사 도서관은 다른 사본들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부가 다른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다.

1835년 8월 17일 대회에 소개된 교리와 성약은 참석한 교회 회원들의 거수 지지에 의하여 경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교리와 성약 초판은 1835년 겨울에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103개의 개시편이 수록되었으나, 그 순서는 오늘날의 순서와는 같지 않았다. 그러다가 1844년에 111개의 편이 수록된 제 2판이 출판되었다. 예언자 요셉은 사망 전에 제 2판에 관한 일을 했다.

1876년과 1921년에 출판된 두 가지

판에는 획기적으로 많은 편이 첨가 출판되었다. 1876년도 판에는 26개의 편이 첨가 수록되었다. 이들 첨가편에는 먼저의 교리와 성약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요셉 스미스의 설교와 서한,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실렸던 기사 등의 발췌와 계시가 포함되었다. 처음으로 절이 구분된 본문에 각주와 전후 참조가 첨가되었다.

1921년도 판에 나타난 변경은 주로 기술적인 면에서의 변경이다. 처음으로 책이 두 난으로 출판되었다. 역사 자료에 관한 주석과 전후 참조도 향상되었다.

교리와 성약은 140여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물문경과 같이 교리와 성약도 시대의 시험과 비판자들의 혹독한 비판에 견디었다. 이 두 가지 책은 모두 다른 경전들을 확인하고 보완해 주고 있다. 오늘날 4백만의 말일 성도는 이 책을 현대인에게 주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버몬트 로이얼 턴의 국민학교 교사



이는 너희가 계명 중에는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며 또 의로운 것은 위 곧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앎이니라

(교리와 성약 67:9)

카난다구아 로드와 구모라 언덕

